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2025

07 / 13

[다해] 제2491호

연중 제15주일

소리주보QR코드



(사)한국여기회 제14회

‘여기애인(如己愛人)상’ 독후감 시상식 ▶

대구주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한다(마르 12,31)

회 여기애인상 독후감

2025년 7월 5일

소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별관

주관·주최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
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
이다.

제1독서 신명 30,10-14

화답송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
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25-37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산성당 주임
안병권(요한) 신부

말씀 KEY WORD

자비
(엘레오스 ἔλεος)

이웃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비’라고 번역된 ‘엘레오스’는 전형적인 법적인 개념으로, 재판장의 자비를 바라는 죄인의 심정을 담아내는 말마디입니다. 자비는 내가 베푸는 나의 호의나 선의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한 죄인이니 서로를 향한 자비로 서로에게 감사한 이웃이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용기 있는 사마리아인!

흔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우리 교우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착함’과 ‘선함’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않습니까?

‘착하다’ 혹은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어가고 있고, 그 의미와 범위가 너무나 두리뭉실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심지어 이는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어 오히려 사람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고 짐이 되어 보일 때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복음이 ‘착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착한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요구로 이어진다면, 이는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앞세워 사람들을 그저 ‘착하다’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놓으려 하는 것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흔히 곤란한 경우에 우리는 종종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요구를 하는 이들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 쉽게는 아쉬운 사람 혹은 바로 약자입니다.

반대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 볼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지,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신의 것을 내어 준다는 것,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운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착하다’라는 말로 한정 짓거나 가두어 버릴 수 없는 마음이자 행동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이의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나게 된 사마리아인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봉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나 ‘희생’ 그리고 ‘봉사’나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들은 다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자 행해야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 ‘착하다’ 혹은 ‘착해야 한다’라는 말로 굴레를 씌우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 가두지도 않으며, 용기 있는 현대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여기회 제14회 '여기애인(如己愛人)상' 독후감 시상식

(사)한국여기회(총재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이사장 : 박영일 바오로 신부, 회장 : 권오광 다미아노)에서 주최하는 제 14회 '여기애인상' 독후감 시상식이 7월 5일(토) 오전 11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에서 열렸다.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아내를 잃고 부상을 당했지만 피폭자들을 보살피며 원폭의 폐해를 연구한 나가이 다카시 박사(바오로, 1908-1951)가 주장한 '여기애인'(如己愛人,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 당시 한국여기회 총재 고(故) 이문희(바울로) 대주교에 의해 제정된 이번 행사는 해마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여기회 교류행사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일본여기회 도모나가 마사오 이사장(일본적십자사 나가사키원폭병원 명예원장), 일본여기회 나가이 도쿠사부로 부이사장(나가이 다카시 기념관 관장), 미야자키 요시노부 나가사키대교구장 비서가 함께한 가운데 심효준(대건고 1) 학생이 대상(한국여기회총재상)을, 오세경(산자연중 3) 학생이 특별상(나가사키대교구장상)을 받았고, 서기운(대건고 1) 학생과 김지인(대건중 2) 학생이 최우수상(대구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여기회는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여기애인(如己愛人)'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제8대 대구대교구장 고(故) 이문희(바울로, 1935~2021) 대주교에 의해 2004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700여 명의 회원이 그의 이웃사랑과 평화정신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효자성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7월 2일(수) 오후 2시 효자성당(주임 : 오철환 바오로 신부)은 본당 교육관에서 생명존중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본당 신자 38명이 참석하여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과 절차를 익혔다.

수성성당, 여성의 날 행사

수성성당(주임 : 이상택 리노 신부)에서는 7월 5일(토) 오전 10시 미사 후 '사랑으로 하나되어'라는 주제로 여성의 날 행사를 가졌다. 1부는 율동, 팬플룻 연주, 라인댄스, 합창, 각설이타령 등 다양한 공연으로 2부는 건강특강을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동성당, 참 사랑이신 주님을 향하는 찬미의 성가 피정

7월 5일(토) 오후 7시 40분 신동성당(주임 : 임재우 마르첼리노 신부)에서는 본당 설립 57주년 기념 '참 사랑이신 주님을 향하는 찬미의 성가 피정'이 열렸다. 참회, 정개, 성모, 감사의 4개 주제로 기도와 성가를 함께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2020.10.28 armi nucleari, missili, guerra, armamenti, disarmo atomico
(©Scanrail - stock.adobe.com))

교황청, 유엔에서 "군비 지출로 가장 빈곤한 나라들의 자원을 빼 앗고 있다."고 지적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현실들이 있다. 빈곤, 저개발, 갈등이다. 이러한 상호 연관된 과제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통합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교황청은 지난 6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토론회 “빈곤, 저개발, 갈등: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합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에서 국제 사회의 모든 형태와 규모의 빈곤 퇴치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큰 세계적 과제이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이러한 공동의 약속이 “불의, 배제, 그리고 기본권 침해와 연관되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청은 이미 1967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76항)이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했음을 상기시키며, 교회의 사회 교리 요약서에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다.”(『가톨릭 교리서』, 494항)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교황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 협력, 공동 번영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상기시켰다.

군비 지출에 대한 우려

온전한 인간 발전은 “모든 인류에게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구체적 길”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청은 유엔에 “보건, 교육,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상당한 자원을 빼돌리는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청은 현재 군비에 투입되는 자원을 재분배하여 부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제 기금 설립 제안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더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을 뒷받침하고 정의, 연대, 그리고 복지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교황청은 “평화 구축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핵심”으로 통합적 인간 개발을 두고, 평화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2025년 6월 26일 바티칸 뉴스 번역|박수현

새 성당 강복

- 12월 8일(토)** 부산진에서의 마지막 날. 상당히 바쁘다. 저녁 무렵에 온 페랑 신부는 내일 우리의 출발 뒤에 미사를 한 대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묵었다. 왜냐하면 내가 4시 30분에 공동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우들은 별로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 수요일 오후 또는 늦어도 목요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던 나의 마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큰 곤경에 처해있다. 내가 안장만 갖고 있었더라면 괴로움이 덜할 텐데, 불행히도 안장을 마부에게 맡겼기 때문에 말을 구하고서도 곤경에 빠져 있다.
- 12월 9일(일)** 아침 4시에 기상. 4시 30분에 미사. 6시 40분 기차 편으로 출발. 8시 전에 물금(勿禁)역에 도착. 물금에서 나는 다행히도 어제 오후에 도착한 나의 마부와 내 말을 만났다. 바로 첫날 병으로 인해 중단한 그는 제때 부산에 도착할 수 없음을 알고는 곧장 물금으로 가는 지혜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날이 좋을 때 도착했으나, 도착(30리) 즉시 11시 15분에 시작한 첫 번째 찰고 동안 하늘이 흐려지더니 오후에는 가끔 많은 비가 내렸다. 비는 회장의 교우들과 함께 지은 매우 아름다운 새 성당의 강복식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 12월 10일(월)** 오늘 아침에 베르몽 신부와 페셀 신부의 보좌를 받으며, 성모 성탄을 주보로 대석(大石)성당을 강복했다. 상당히 바쁜 하루다. 이 공소는 지난번 방문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어린이들 가운데는 교리문답 교육에 발전이 없는 아이들이 아직도 꽤 많다.
- 12월 11일(화)** 9시 30분에 50리 길을 출발. 북풍, 몹시 추운 하루다. 도중에 주막에서 새참을 먹었으며, 이곳 송대(松臺)에 도착한 우리는 3시에 나온 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4시 15분 전에 27명의 찰고를 치렀다.



전례는 삶의 희망입니다

1. 어렵고 힘들어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위로**를 나누어줍니다.
2. 갈라지고 떨어진 친척과 이웃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례의 해를 맞아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월간 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6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일시 : 9. 3. ~ 10. 1.(매주 수) 19:00~22:00

장소 : 꾸르실로 교육관

대상 : 모든 어머니 (선착순 35명)

비용 : 15만 원

마감: 8. 25.(월) 17:00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빠들의 신앙 충전 피정 **아빠들의 가출 페스티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마태 1,19)

일시 : 9. 6.(토) 15:00 ~ 7.(일) 15:00

장소 : 영성관(사수동 베네딕도 수녀회)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아빠(선착순 20명) 비용 : 10만 원 마감 : 8. 20.(수) 17:00



신청 및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교구청 직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 수법 주의 요청

최근 교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리구매 사기 수법’이 발생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교구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금전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을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셨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 함께 드리는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4일(월) 10:00 황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범어성당	1대리구 3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9일(토) 10:00 동천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7월 19일(토) 11:00 성모당

수도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7.19(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임

성모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봉헌하고자 하는 수도 생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수도자의 삶에 관심있는 청소년, 청년
문의: 성소부, (010)5195-3217

렉시오 디비나 대피정(대구성령쇄신봉사회)

(기초신학적 렉시오 디비나)
일시: 7.19(토) 10: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의 집 대성전)
강사: 박태범 라자로 신부 / 김두찬 신부
문의: (054)954-0951 / (010)9573-3217

성모술술마을 치유 피정

환우 치유 기도 피정: 첫째주 토~일 8.2~3
치유대피정: 둘째주 금~일 8.8~10 / 9.12~14
단식 치유 피정(효소): 셋째주 목~일
말씀 치유 피정: 넷째주 토~일 8.23~24
문의: (010)3209-3955 문자접수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제주 산들순례피정

말씀 성가정 피정: 8.8~10 / 여름 우도 피
정: 8.16~18, 8.23~25 / 생태순례: 9.15~17,
9.26~28, 10.1~3, 10.12~14, 10.27~29 / 성

지순례(추자도): 9.9~12, 10.16~19 / 제주성
지와 숲, 바다 / 면형의집: (064)732-470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8박 9일: 8.24~9.1 / 12.1~19
40일: 10.14~11.22
장소: 여주 신단2길 109-13
예수마음선교수녀회(여주)
신청: (031)885-5015 / (010)6471-6932

일반 알림 | 기타

남대영기념관 수요강좌

[영성심리: 자기다움의 여정]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자기다움 여정
일시: 7.16(수) / 7.23(수) 19:00~20:30
장소: 남대영기념관 4층
참가비: 1회 2만원

역대기계 역사서 무료강좌

일시: 7.25~(매주 금) 10:00~12:30 총 16주
장소: 성바오로수도회 대구분원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미사준비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양은철 신부
(010)9333-6260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동영상 강좌 / 9월 개강

구약성경 아카데미: 예언서 해설
성격장애와 영성생활
신의 선물, 음악의 히로애락
서구문화 속 그리스도교 미술
문의: center.jesuit.kr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VDB)

대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돈보스코 영성에 따라 살고 싶은 분
문의: (0507)1306-1505 / 카카오톡

재속프란치스코회 새 지원자 모집

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 복음을 살며
형제애를 나누는 공동체
함께 해 보실래요?
기간: 9.5(금)까지 / 자격: 53세 미만
문의: (010)4331-0119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1차: 8.14(목)~15(금)
대상: 고3~35세 이하 미혼 남성
2차: 8.16(토)~17(일)
대상: 중1~고2 남학생
신청: 7.31(목) / (02)828-3522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2 베트남 중부 (5일, 140만원)
10.16 유럽 성모발현지 (12일, 510만원)
11.4 동부유럽 (11일, 430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멕시코 해외 성지순례 모집

10박 11일 성모발현지 과달루페+칸쿤
출발: 11.25(화)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여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8번 출구)

개원 40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 ●여드름 ●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 ●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민사 형사 가사 행정(학폭, 음주)
정진욱 변호사
(토마스모어)
애플
010-8483-5657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14층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도앤김연내과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람(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대성빌딩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파크골프
국산채 최대50% 수입채/홀마 무료레슨
(주)매일프라자
대형선공기 냉풍기 소형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가전
김훈은(요셉) 010-9804-8008
대구 유통단지 45 전자관 동문1층 240호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영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교구 | 대리구

예비신학교 여름 성소캠프 & 피정

중1-2: 7.16(수)~18(금)

중3-고1: 7.18(금)~20(일)

고2: 7.22(화)~23(수)

고3, 대학일반: 7.29(화)~31(목)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17차 약혼자 주말

기간: 8.29(금) 20:00~31(일) 15: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대상: 예비부부 및 혼인 1년차 이내

비용: 36만원(2인) / 마감: 8.13(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시설 | 기관 | 단체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강사초빙 서류접수

접수: 강사위촉 신청서류, 증명서류

마감: 8.20(수) / 문의: 254-6115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기간: 8월 말~12월 중순(16주간)

화, 목, 토(선택) 10:00~17:30 / 90만원

대상: 자신 · 타인 돌봄에 관심있는 분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전인병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의과·한 의과 통합의료 재활병원

문의: 1688-7667 (8:30~17:30)

44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가족, 성인&대학생

내용: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여학연수&해외봉사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6.15(화) 10: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010)3515-7555

체나콜로 7월 미사 (매월 셋째토)

성모신심미사와 기도모임에 마리아

사제운동 회원과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7.19(토) 10:00, 삼덕성당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문의: (010)9366-9170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419차 ME주말: 7.25(금)~27(일)

420차 ME주말: 8.15(금)~17(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 983-0521



▷ ME주말
소개



▷ ME주말
신청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823-1970

가톨릭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의 신비를 알면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이 보인다.

장소: 가톨릭문화관

(1호선 교대역 요셉발건강)

문의: (010)3817-5255 수료자 환영

바오로딸 공예 / 성경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목주바구니 코바늘뜨기

7.16(수) 14:00~16:00

영어로 성경읽기-루카복음편

7.23부터 8주간(수) 14:00~15:30

신청: (010)6681-5185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간 운영
박구 유달 병환 중단 시행 기준

진료 예약 문의 | ☎ 053) 320-2500

Sc 현대S라이프

크루즈, 웨딩, 장례 상담
라이프플래너(LP) 모집

상담전화 1566-1678

대구연세안과

실크스마일 / 백내장 / 녹내장 / 황반변성 / 드림렌즈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의학박사(연 연세대 외래교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평화EnC 가스 시설
시공업체1층

도시가스 신규 및 기존 배관시설 공사
도시가스 특정시설 관련 문의 환영
LPG 탱크설치 및 부대 공사
LPG 밸브공급 관련 문의 환영
"가스에 관한 모든 고민 함께 합니다"

대표이사 김 태 우 (대건안드레아)
☎ 053-782-1991

죽전속내과

일요일 진료·위/대장 내시경·건강검진

내과전문의·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
민지원(베로니카)

죽전역 2번 출구
하나은행 건물 2층 ☎ 053)562-757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